

나주시 지역 먹거리 지수 'S등급·대상'

전국 159개 시·군 지자체 평가 3년 연속 최우수상 이어 대상 로컬푸드 확산 노력·정책 호평

나주시가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저력을 바탕으로 올해는 'S등급·대상'을 수상하면서 먹거리 정책 우수성을 전국에 과시했다.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는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 활성화 정도와 이를 위한 지자체의 실천 노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며 지난 2019년에 처음 시작돼 시범사업을 거쳐 4년째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국 159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촌·도농복합형 평가와 69개 자치구 대상 도시형 시범 평가를 병행해 우수 지자체 25곳을 선정·시상했다.

평가는 지자체별 로컬푸드 확산 노력과 먹거리 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14개 지표로 세분화해 이뤄졌다.

나주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최고상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평가지표 중 '지역 먹거리 계획 공적 추진 체계 구축'에 있어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 농가 조직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나주시가 S등급(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윤병태(가운데) 시장과 조성은(왼쪽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장, 센터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 음식물쓰레기 감축 정책지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진열 기간이 지난 농산물과 주민의 자발적 음식 기부로 운영되는 '우리 동네 공유냉장고'와 '나주로컬푸드 재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등 환경보호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호평을 얻었다.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도농 상생 협약 추진, '나주밤상' 지정업소 21곳 운영을 통한 외식업체에 로컬푸드를 공급한 노력도 우수 정책 사례로

꼽혔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농가에 안정된 판로와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3년 연속 최우수상에 이은 올해 대상 수상은 우리 지역농산물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협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로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용대연못 자연생태 연못으로 탈바꿈

화순군이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 있는 용대연못(사진)을 자연생태 연못으로 꾸몄다고 10일 밝혔다. 화순군은 용대연못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변 풀을 베며 주변을 정비했다. 연못의 생태 보존을 위해 물 빼는 작업 등을 최소화하고 부유물만 제거하는 것으로 연못의 관리방식을 변경했다.



그 결과 최근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토하 새우가 발견됐다. 용대연못에는 잉어와 붕어, 우렁이, 보리새우 등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 있는 용대연못은 회랑과 인접해 있어 광주 등 인근 방문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장성경찰 '다문화 치안봉사단' 합동순찰

장성경찰은 최근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 치안봉사단' 등 20여명과 합동으로 범죄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사진>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다문화 치안봉사단은 안전한 장성,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으며, 외국인 대상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번 합동순찰을 통해 막차를 놓쳐 버스터미널 대합실 의자에 홀로 누워있던 A씨(여·75·독거노인)를 발견, 인접 파출소와 연계해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합동순찰에 참여한 베트남 국적 응웬티투엔씨는 "고향에 계신 엄마가 생각나 눈물이 났다. 할머니를 안전하게 집에 모셔다 드릴 수 있어 보람된 하루였다"며 "경찰관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현 장성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정성치안으로 안전한 장성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을 찾은 축구 선수단의 전지훈련 모습.

강진군 전국규모 스포츠 대회 잇단 유치...지역경제 기여

전국중등축구리그 2년 연속 개최 올 10만명 찾아 100억 경제효과

강진군이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를 잇따라 유치하는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군은 초등(U12) 동계 페스티벌 축구대회 및 중등 1학년 축구 페스티벌에 이어 최근 전국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2년 연속 유치했다.

매년 11월 개최되는 전국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은 전국 64팀 선수 1500명이 열정적인 경기를 펼치는 자리로 어린 선수들에게 축구의 매력을 체험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내년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강진축구전용구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초등(U12) 동계 페스티벌 축구대회'에는 전국 초등(U12) 48개 팀 1000여 명이 참가해 팀의 명예를 걸고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군은 전국규모 축구대회를 위해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인조잔디구장 1면(105×68m)을 준공

하는 등 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올 한해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10만8998명이 방문했고 100억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강진군은 집계했다.

내년에는 21만명 방문을 목표로 2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이루어낸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국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 많은 대회와 전지훈련팀을 강진으로 유치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군, 근로자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담양군이 연말을 맞아 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담양군은 지난 10월부터 기업체 근로자 대상으로 연말 정산과 관련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4개 농공(산업)단지 제조업체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광주 진곡 산단,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공장 등을 대상으로 총 21회의 방문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에는 산업

단지 구내식당에서, 근로자 출퇴근 시간에는 대규모 제조기업에서 세액공제 집중 홍보 전단지 및 팸플릿 등을 배부해 근로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담양군 관계자는 "열악해진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연말 정산 시 기업체와 근로자에게 상당히 실속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저변 확대를 위해 남은 연말까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항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